

알카미

Vol. 23

2017 Summer



진정한 여행

나짐 히크메트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나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향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 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 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Contents

HANNAM DREAM
2017 Summer
Vol.23



발행일 2017년 6월 발행처 한남대학교
발행인 이덕훈 편집인 정종영
취재·글 김대진, 장효진
제작처 한남대학교 입학홍보처 홍보팀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오정동) www.hannam.ac.kr
편집디자인·인쇄 한성 P&I

새로운 60년

- 06 독수리 마스크트 등장
- 08 학생·교직원 통합식당 오픈(멘사 크리스티)
- 09 학생이 만드는 깨끗한 캠퍼스
- 09 수요일 조기 퇴근제 시행
- 10 최고의 명품 장학금 '다니엘 장학금' 수여
- 11 학생홍보대사(HUA) 소개

도전하는 한남

- 12 창학 이래 최대 링크플러스 사업 선정
- 14 인도차이나 및 남대문시장 진출
- 15 IPP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선정
- 15 과태교육혁신원 개원

파워 인터뷰

- 16 대전기독교학원 제21대 이성희 이사장

입시정보

- 18 스승의 날 고교 은사께 엽서 보내기
- 20 2018학년도 수시모집요강
- 22 학과소개(자유전공학부, 연계전공)

특별한 한남인

- 24 일흔의 새내기 조정연 학생
- 26 장애를 극복한 박경순 겸임교수

HNU 포커스

- 28 글로벌로 승부하다!
- 30 린튼스쿨, 세계를 품다!
- 31 59대 총학생회 '올림', 깊은 울림을 주다!

한남뉴스

- 32 학교 소식
- 35 교수 동정

기부금 현황

- 36 여러분의 기부에 감사합니다

영화 속의 한남

- 38 살인자의 기억법, 덕혜옹주, 씨시봉, 변호인, 코리아, 그 해 여름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60년

한남대학교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이 심상치 않다. 혁신을 발판으로 새로운 60년을 향해 도약하겠다는 한남대학교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캠퍼스 곳곳에서 보이는 변화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독수리 마스코트 등장

한남대학교 캠퍼스에 커다란 독수리가 나타나 구성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바로, 본교를 대표하는 독수리 마스코트가 만들어진 것. 창의혁신본부는 5월 1일 학교 상징동물인 독수리를 마스코트 이벤트 의상으로 제작해 캠퍼스와 행정부서를 돌며 학생 및 교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마스코트를 접한 임윤수 학생(경영학과 4)은 “교내 상징탑에서만 볼 수 있었던 독수리를 마스코트로 보니 친근하고 귀엽다.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다” 고 말했다. 독수리 마스코트는 암수 한 쌍으로 제작됐으며, 마스코트 이름은 공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봉제 인형, 기념품 등 다양한 학교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제작된 마스코트 의상은 개교기념 행사, 어린이날,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시 홍보, 입학식, 졸업식, 각종 운동경기 등 대내외 홍보 및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1. 이덕훈 총장(가운데)과 학생들이 마스코트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 한남대학교 상징캐릭터 디자인
3. 독수리 마스코트 인형이 정림축제(You Hu)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벤트를 즐기고 있다.





2



3



1

학생식당, 교직원식당 통합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 오픈

본교는 1일 기존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을 통합한 카페테리아 '멘사 크리스티' (MENSA CHRISTI '주님의 식탁' 이란 뜻) 오픈 행사를 가졌다.

'멘사 크리스티'는 학생회관의 학생식당(876㎡)을 리모델링해 350석의 식탁과 약 300석 규모의 야외 콘서트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약 1,000명의 식사가 가능하다. 또한 식사시간 이외에는 야외 원형 콘서트장이 있어 학생들의 문화공간 및 휴식장소로 활용된다.

메뉴는 매일 반찬과 국 등이 바뀌는 4천원의 백반 이외에 김밥 및 분식류, 피자, 샐러드 등으로 다양하다.

이성희 본교 이사장(예장통합총회장)은 축사에서 "아름다운 캠퍼스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고, 아름다운 식당이 새로 생겨 금상첨화"라며 "학생과 교수, 직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좋은 교제의 식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덕훈 한남대 총장은 기념사에서 "학생과 교수, 직원이 함께 식사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대학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돼 통합식당을 만들게 됐다."며 "특히 학생들에게 맛있는 식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본교는 지난해 10월 노후된 학생식당을 통합 카페테리아로 변경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디자인 공모를 거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1. 본교 이성희 이사장(중앙 좌측)과 이덕훈 총장(중앙 우측) 등 학교 대표들이 1일 학생·교직원 통합식당의 조형물 제막식을 갖고 있다.
2. 학생·교직원 통합식당의 조형물



2



학생이 만들어가는 깨끗한 캠퍼스 ‘캠퍼스 쓰레기통 도색 작업’

지난 4월 28일 본교 상징탑 옆 주차장에서 이색적인 행사가 펼쳐졌다. 학생들이 붓과 페인트를 들고 낡은 쓰레기통 주변에 둘러앉아 색칠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 이날 이들이 작업한 것은 본교 캠퍼스 곳곳에 놓여 있던 60개의 쓰레기통이었다.

본교 창의혁신본부 주관으로 진행된 ‘캠퍼스 쓰레기통 외관 도색작업’ 행사는 캠퍼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융합디자인전공 학생 40여 명이 참가했으며, 시설관리팀, 학생복지팀 등 학내 행정부서들의 지원 속에 진행됐다.

융합디자인전공 학생들은 멋있었던 쓰레기통에 다양한 꽃을 그리며 캠퍼스 환경 개선을 위해 자신들의 재능을 뽐냈다. 이 학과 3학년 강민정 학생은 “제가 다니고 있는 캠퍼스의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했고 학생들과 다같이 참여할 수 있어 즐겁고 색다른 경험이었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교의 학교법인 대전기독교학원 이성희 이사장과 이덕훈 총장 등 이사들도 도색작업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수요일 직원 조기 퇴근제 시행

“이전보다 업무를 더 신속히 처리하고 집중력도 높아진 거 같아요.”

본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기 퇴근제도를 실시한지 3개월이 지났다. 어색하게 조기 퇴근길에 오르던 초창기 때와 달리 지금은 직원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잘 정착되고 있다.

조기 퇴근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이덕훈 총장의 노력이 있었다. 수요일 오후 3시 반이 되면 잔류 근무자를 제외한 직원들을 불러 함께 퇴근길에 오른다. 또한, 조기 퇴근 이전에 직원들과 따로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교는 지난 3월 10일부터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국가 차원의 내수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조기 퇴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직원을 대상으로 학기 중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 퇴근하는 것으로, 각 부서별로 1명씩 지정된 잔류 근무자가 근무한다.

3. 융합디자인전공 학생들이 캠퍼스 쓰레기통 도색 작업을 하고 있다.

4. 이덕훈 총장(오른쪽 두번째)과 직원들이 조기 퇴근을 하고 있다.

최고의 명품 장학금 '다니엘 장학금' 수여

스승의 날인 5월 15일, 재학생 12명이 뜻깊은 장학금을 받았다. 바로 올해 신설한 '다니엘 장학금'으로 이덕훈 총장은 5월 15일 낮 12시 총장실에서 수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니엘 장학생 대표 김세연 학생(교육학과 4년)은 이 총장에게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니엘 장학금은 성적이 최상위권이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한남대 최고의 명품 장학금이다. 장학혜택도 등록금 전액과 연 400만원 도서비 지원, 기숙사비 지원, 해외교류 활동 시 우선순위 부여, 한남대 대학원 진학 시 전액 장학금 지급 등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총장이 취임 후 총장 전용차량을 반납하고 절감한 연간 약 1억5천만원을 재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덕훈 총장은 "우리대학 설립 초기에 선교사님들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포함해 생활비까지 지원했었다"며 "이런 좋은 전통을 되살려 최상급의 장학제도를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남대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내년에 입학할 신입생 중에서도 일정 인원을 다니엘 장학생으로 선발, 우수한 고교생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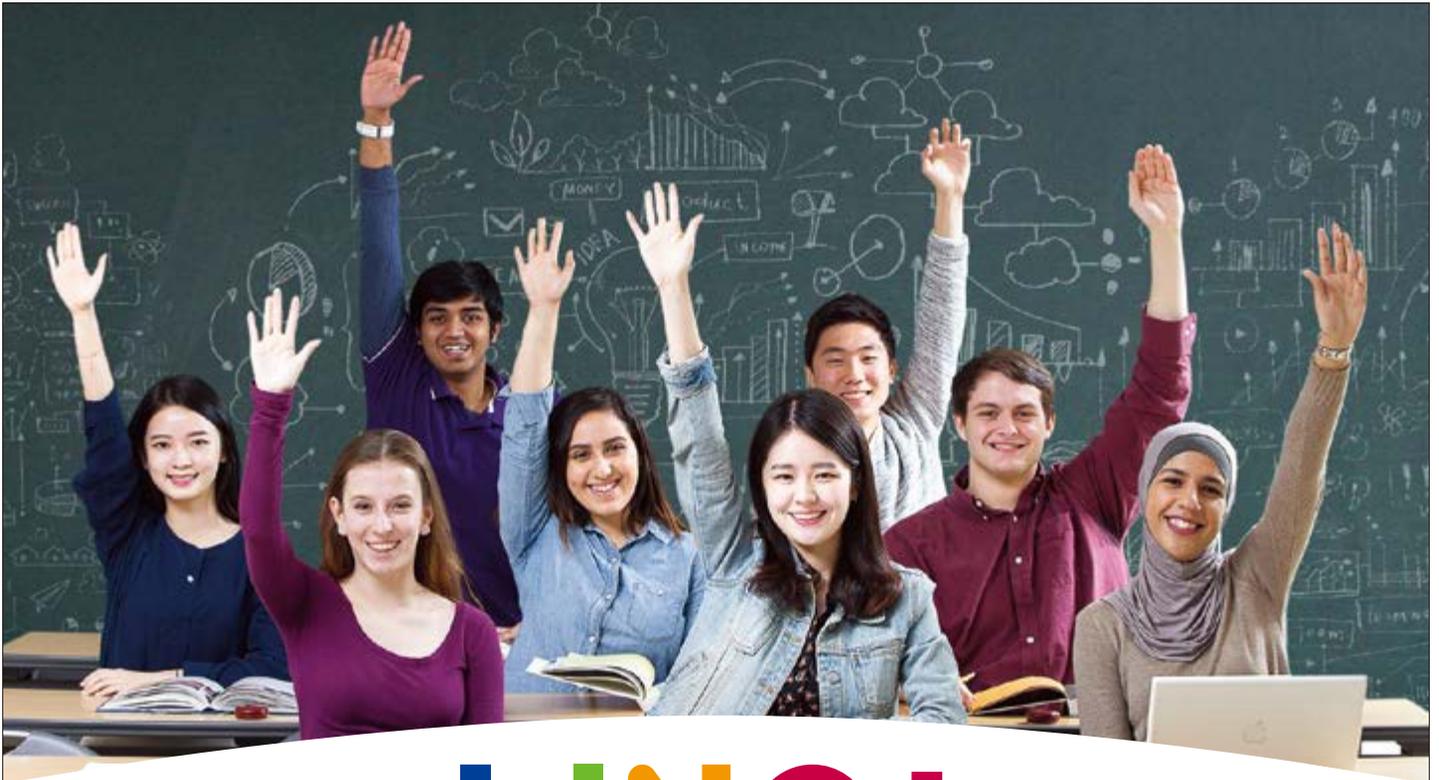
학생홍보대사(HUA) 12명 선발

지난 5월 1일 총장실에서 학생홍보대사(HUA) 임명장 전달식이 진행됐다. 기존 3명의 홍보대사와 올해 9명의 홍보대사가 선발되어 총 12명의 홍보대사가 임명장을 받고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됐다.

그동안 9명의 홍보대사가 학교의 각종 행사와 의전활동에 참여해 한남대학교를 대표해 왔지만, 활동인원이 적어 의전활동지원, 행사참여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올해 12명으로 선발하면서 주요행사 의전 및 안내, 입시 설명회 참여, 화보촬영 등의 업무를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1. 다니엘 장학금 수혜 학생 및 학부모들과 이덕훈 총장(앞줄 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올해 선발된 학생홍보대사 12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INC+를 통해 산학협력의 新패러다임을 제시하다



LINC+

산학협력, 대학과 지역사회·기업의 신나는 만남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대전·충청지역 최고 5년간 약 **230**억원 국비 확보

개교61년을 맞이한 한남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혁신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 변화를 기반으로 융·복합 인재 양성, 취·창업 활성화 등의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남대의 소식들을 담아보았다.

창학 이래 최대 국책사업 링크플러스 사업 선정

혁신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과는 지난 4월 발표된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선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한남대는 일반대학의 '산학협력 고도화' 유형에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남대학교는 대전·충청지역 최고인 향후 5년간 약 23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우수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및 창업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혁신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덕훈 총장은 "LINC+ 사업 선정은 대학 구성원들의 단합된 수고와 열정 덕분"이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취업 및 창업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대학교는 대전 중 앙로 지하상가를 활성화시켜 글로벌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과 청년창업클러스터 조성, 지역 연구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등을 집중 추진한다. 또한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앞서 한남대학교는 중소기업청의 거점형 창업선도대학,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자리 센터, 교육부의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 4개 사업단 선정 등에 이어 이번에 LINC+ 사업에 선정돼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사립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선언식에서 이덕훈 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인도차이나 및 남대문시장 진출

한남대학교가 글로벌 산학협력을 적극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3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남대 산학협력 글로벌 비즈니스 1호점’인 카페 ‘엘로체어’ (가칭)의 현판식을 갖고, 커피 생산량 세계 2위인 베트남 커피의 글로벌 사업화에 나섰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덕훈 총장과 성인하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단장, 김태곤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호치민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OKTA 호치민지회와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한인상공인협의회(KOCHAM) 빈증성 지회와 산학협력협약도 체결했다. 본교는 현지 기업들의 수요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학생들의 해외 현장실습 및 인턴십, 무역 비즈니스, 글로벌 창업프로그램 참여를 진행하게 된다.

베트남 대학과의 네트워크도 확대했다. 호치민의 명문대학인 ‘껌터 대학’과 상호교류협약 체결에 합의하고, 올해 하반기 MOU 체결 후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개시하기로 했다. 껌터 대학은 93개 학과, 34개 대학원 과정에 6만여 명이 재학 중이다. 또한 빈증성 도립대학인 ‘투저우웃 대학’과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하고 학술문화 교류 및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저우웃 대학은 재학생 1만

5000여 명 규모의 도립대학으로 26개학과, 9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본교는 향후 인도차이나 6개국(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으로 글로벌 산학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 호치민에 ‘한남대 인도차이나 거점센터’를 세운 바 있다. 이덕훈 총장은 “학생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로컬 창업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을 거점으로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IPP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선정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행보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IPP 일학습병행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던 이어 2017년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시행하는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에 선정됐다.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자격의 일학습 병행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4학년 학생들을 학습근로자로 선발한 뒤 대학에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 실무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한남대학교 IPP 일학습사업단(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단장 윤영선)은 향후 4년 동안 매년 20억 원씩 최대 8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는 IPP 장기현장실습과 병행하여 14개 기업 31명의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기계제어 설계, 마케팅 전략기획, 건축설계 등 3개 분야 훈련직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학생들의 조기취업, 실무능력 중심의 교육 실시, 대학과 산업 현장간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취업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덕훈 총장은 “이번 듀얼공동훈련센터 선정으로 대학이 추구하는 실무인재형 학생 양성을 위한 좋은 산업협력모델로 발전하는 발판이 되며, 더 많은 학과와 학생들의 참여시켜 실무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 이라고 전했다.

괴테교육혁신원 개원

한남대학교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괴테교육혁신원’ 이 신설됐다. 앞으로 괴테교육혁신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2월 15일 개최된 개원식에서는 최준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원장, 유우섭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을 비롯해 태대학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교육혁신원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했다.

괴테교육혁신원은 1960년 미국 듀폰사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다 한국에 와서 한남대 화학과를 설립, 26년간 교수로 봉직하며 과학교육을 혁신하는데 기여했던 로버트 괴테(88 · 한국명 계의돈) 박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교육혁신원은 ▲종합적 사고 역량 ▲자기계발 역량 ▲실용·전문 역량 ▲창의·융합 역량 ▲글로벌문화 역량 ▲실천리더십 역량 등을 교육의 6대 핵심역량으로 설정하고, 학문분야별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3

1. 이덕훈 한남대 총장(오른쪽 다섯 번째) 등이 3일 베트남 호치민에 문을 연 ‘산학협력 글로벌 비즈니스 1호점’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2. 이덕훈 총장(오른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남대문시장에서 열린 ‘한남글로벌 창업&디자인 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3. 이덕훈 총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IPP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현판식’을 갖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 이덕훈 총장(앞줄 오른쪽 여섯 번째)과 내외빈들이 괴테교육혁신원 개원식에 참석하고 있다.



4



대전기독학원 제21대 이성희 이사장을 만나다

“한남대학교가 한국과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훌륭한 미래인을 양성하는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교 이사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제게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한남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70년대에 처음으로 제 아내를 만난 곳이 한남대학교예요. 그 때 한남대학교를 자주 오갔고, 이 주변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학교에서 일을 하게 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사회는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명문사학의 한남대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1. 글 • 홍석용(정치언론국방학과 2학년)
2. 사진 • 전길원(린트글로벌비즈니스스쿨 2학년)

대전기독교학원 이사장직 말고도 서울연동교회 담임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등 하시는 일이 많고 바쁘실 텐데요. 이사장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 저는 25시간처럼 살아요. 이 같이 저는 하루를 부지런하게 시간을 쪼개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도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업무 분담과 관리를 적절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덕목이 중요합니다. 저는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고교와 대학시절은 어떠셨나요? 언제 어떤 계기로 목사의 길을 결심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성장을 했고,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요즘 말로 필(feel)이 꽃혀서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시 아버님께서서는 제가 둘째아들이라 큰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고, 저는 의사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고교 때 제 소양과 관계없이 이과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제법 잘했는데 의예과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목사가 되라고 하는 음성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해서 철학과에 들어갔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의 기초 학문으로써 철학을 공부한 것입니다. 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과의 성경과목 강의도 듣고 하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했고, 자연스럽게 목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학교가 대형 국책사업에 선정되는 등 축하할 일과 새로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한남대의 향후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학교가 미래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총장님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하고, 또 법인은 학교를 재정적인 면 등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을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것이 학생 수 문제일 것입니다. 앞으로 사립 학교들이 통·폐합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많은 고등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매력을 줄 수 있는 학과와 전공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남대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가능한지 계속 문을 두드리려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대해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소문이 많이 나면 교수님들은 열심히 연구할 수 있고 학생들도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 배후에서 지원을 잘 해준다면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래에는 많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남대가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고, 법인은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목사로서 수많은 설교를 하셨을 텐데요, 특별히 좋아하시는 성경구절을 소개해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구절 가운데 안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여유자작하게 이런 편지를 썼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은혜가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감옥에서 신앙으로써 자유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항상 자유로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릴 때부터 빌립보서 4장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남대 학생과 교수, 직원들에게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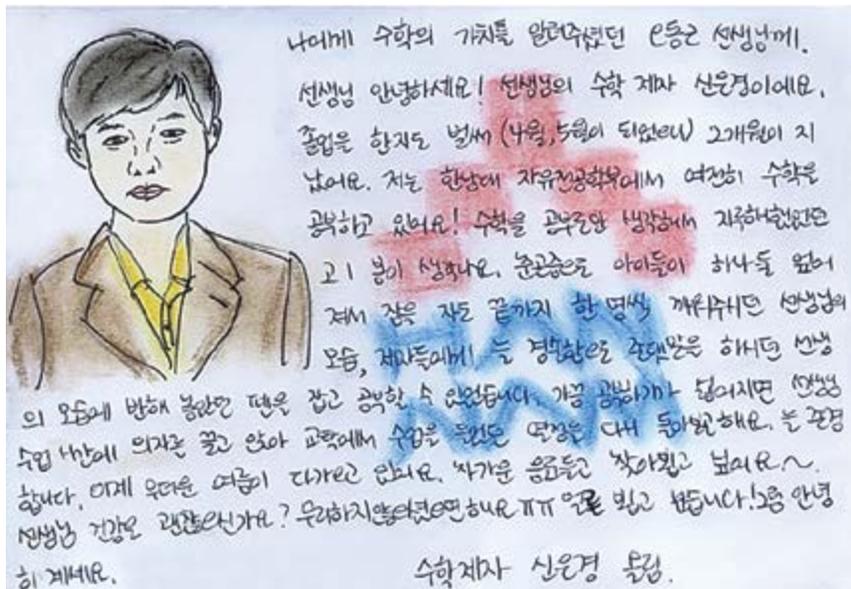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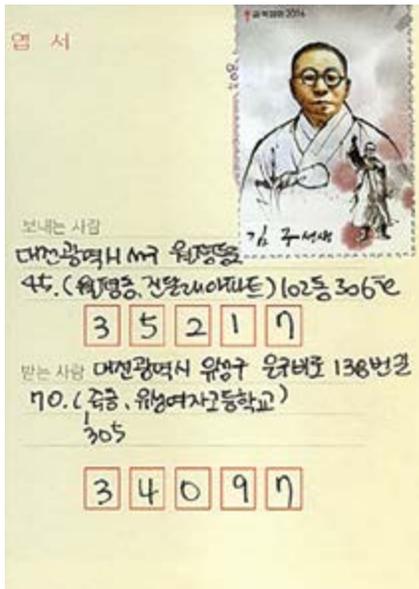
한남 공동체 안에 연대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토대로 내 자식처럼 가르치고, 부모님처럼 섬기는 관계를 잘 유지하길 바랍니다. 또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드러나 있지만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직원들의 수고를 타구성원들이 알아줘야 합니다. 한남대 구성원들이 각각 서로가 맡은 일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관계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 와 '칭찬' 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신을 새긴다면 한남대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를 가봤지만 한남대만큼 분위기가 가족적이고 신앙적인 좋은 학교는 드뭅니다. 제가 한남대 이사장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경험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가 '학문' 과 '신앙', 두 마리의 토끼를 잘 붙잡기 위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엽서로 전한 마음

스승의 날을 맞아 한남대 신입생들이 특별한 이벤트에 참여했다. 바로 출신고교 은사님께 감사엽서를 보내는 이벤트로 스승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학생들은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엽서에 꼭꼭 눌러 담았다. 그 중 우수엽서들을 모아 소개한다.



• 최우수상 - 신은경



한눈에 보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요강

모집인원

2,001명



모집기간

-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7. 09. 11.(월) 09:00 ~ 2017. 09. 15.(금) 19:00

- 서류제출 마감

2017. 09. 11.(월) 09:00 ~ 2017. 09. 19.(화) 21:00

- 1단계 합격자 발표(학생부종합전형)

2017. 11. 10.(금) 17:00 이후

- 최종 합격자 발표

학생부교과전형, 실기위주전형 : 2017. 11. 10.(금) 17:00 이후

학생부종합전형 : 2017. 12. 08.(금) 17:00 이후

전형방법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전형(정원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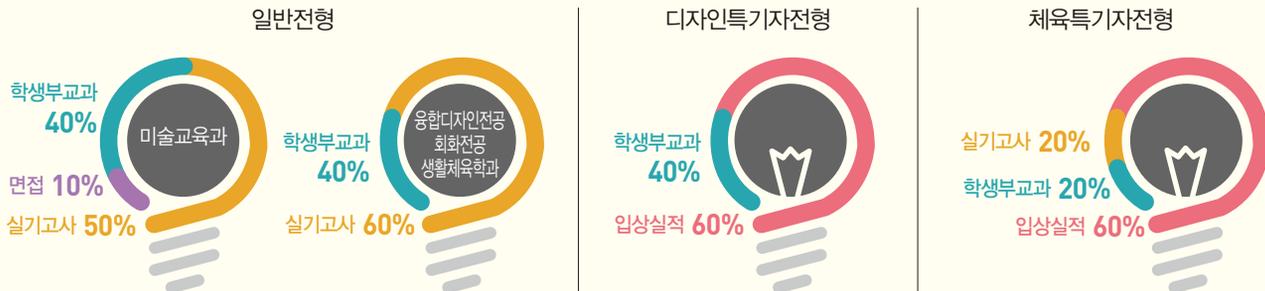


학생부종합

한남인재전형, 지역인재전형, 창업인재전형, 글로벌인재전형, 국가보훈대상자전형, 농어촌(도서·벽지)학생전형 (정원외), 특성화고교 출신자전형 (정원외),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정원외)



실기위주



학생부 반영 방법



인문(의류학 전공 포함) - 12과목 반영(3개 학년 X 4과목)

•필수(국어, 영어) •선택(수학, 사회, 과학 중 2과목)

자연 - 12과목 반영(3개 학년 X 4과목)

•필수(수학, 영어) •선택(국어, 사회, 과학 중 2과목)

예·체능 - 9과목 반영(3개 학년 X 3과목)

•선택(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 3과목)

※ 교과반영방법 학년별로 1개 반영교과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1개 과목만 선택하여 반영



내 적성에 맞춰 선택하는

자유전공학부



글 • 송다혜 경찰·행정학과 3학년
본교 온라인 홍보대사



1년간 계열기초과목 이수 후 2학년 진급 시점에 전공을 선택

대학이 전통적인 학문 탐구의 장이면서 동시에 취업을 위한 준비 장소가 되면서, 고등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하는데 있어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아직 학과를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한남대학교는 올해부터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1년 동안 대학 생활 적응과 함께 전공과 진로 탐색 과정을 거친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과 선택을 위해 학생들에게는 교과·비교과 프로그램과 해당 분야 교수들의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2학기 때는 희망전공을 고르고, 선택에 따라 ▲일반 공학 ▲화학 및 바이오 ▲IT ▲인문사회경상계열 등 총 4개 트랙으로 나누어져 수업을 듣게 된다.

1학년 때 전공 탐색을 마친 학생들은 2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가고자 하는 해당 학과 편제정원의 50%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해당 학과가 희망하는 경우 편제정원의 20% 범위 이내에서 추가로 선발한다. 다만, 특수 교육과정인 사범대학 소속 학과와 간호학과는 전공 선택에서 제외된다.

박병호 학생(자유전공학부 1년)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긴 하지만, 두 학기에 걸쳐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 보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자유전공학부의 큰 장점인 것 같다” 고 말했다.



졸업과 동시에 최대 3개의 전공 학위를 취득하는 시스템으로 화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각광받으면서, 융·복합적 인재양성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교 역시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학업의 장을 열어주고자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에서 연계전공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999년 광고홍보학을 시작으로 지난 해 개설한 인도지역학, 베트남지역학까지 포함, 현재 총 10개의 연계전공이 개설됐다.

본교 연계전공은 타 학과의 전공수업만 듣던 기존의 다전공과 달리 자신의 전공분야와 융·복합이 가능한 다양한 학문을 들을 수 있다. 또 주 전공과 연계전공은 최대 12학점까지 중복 인정돼 두 전공을 합쳐 60학점만 이수하면 두 개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학업에 부담을 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졸업이수 학점까지 고려하면 대학생활 4년 동안 최대 세 개의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연계전공은 수강 인원의 제약이 없고 교양과목처럼 다양한 학과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다 보니, 폭넓고 창의적인 융·복합적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광고홍보학, 문화관광학, 금융공학, 기록관리학 등 사회에서 각광받고 있는 연계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광고 공모전 입상, 대통령기록관 취업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융·복합인재를 키우는

연계전공



글 • 박광순 정치·언론·국방학과 4학년
(광고홍보학 연계전공)
본교 온라인 홍보대사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연계전공

- 광고홍보학
- 금융공학
- 문화관광학
- 융복합창업
- 국제개발비즈니스학
- 기록관리학
- 중국지역학
- 바이오기술마케팅
- 인도지역학
- 베트남지역학

일흔의 새내기, 봉사하는 삶을 꿈꾸다

사회복지학과 조정연 학생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 뿐, 끊임없이 배움의 길을 걷는 조정연 씨. 70세에 늦깎이 대학생이 된 그녀는 또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올해 3월,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큰 관심이 쏟아졌다. 조금 특별한 신입생이 입학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며 봉사하는 삶을 꿈꾸는 이 학생은 바로, 70세의 조정연 씨(사회복지 1년)이다.

환하게 웃으며 교정을 밟는 조씨의 모습은 여느 20대 학생 못지않게 생기가 넘쳤다. 가방을 메고 강의실을 찾는 두 눈에는 신입생다운 호기심이 어려 있었다. 지금은 신입생으로서 활발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오늘이 있기까지 조씨의 노력은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 못지않았다.

“처음에 대학 입학은 불가능처럼 보이는 거대한 산 같았어요”

1999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15년 동안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지난 2013년에 은퇴한 후 조씨는, 지역 복지관이나 대전시민대학을 찾아 합창단 활동, 컴퓨터, 당구, 팽과리 배우기 등 자기계발에 힘쓰며 틈틈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끝나치지 못한 학업에 대한 목마름과 대학에서 제대로 사회복지학을 배우고 싶은 꿈이 있었다.

2014년 조씨는 방송통신고에 입학했다. 조씨의 학업 열정은 방통고에서 폭발했다.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마다 등교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부하고 평일에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3년을 공부한 결과, 지난 2월 5일 졸업식에서 전교 1등을 하며 대전시교육감상을 수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업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충남대병원에서 ‘호스피스 교육’도 수료했다. 봉사에 필요해서다.

“봉사를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건강이 허락되는 한 봉사의 길을 걷고 싶어요.”

전공 선택에 있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조씨. 조씨의 대학 입학은 꿈을 향한 도전 앞에 서있는 청춘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어주지 않을까.

장애를 극복하고 대학 강단에 서다

행정학과 박경순 겸임교수

희망의 아이콘이 된 박경순 겸임교수, 장애의 벽을 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된 그의 인생 스토리가 궁금하다.





지난 2월 진행된 제 55회 한남대학교 전기 학위 수여식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박사의 꿈을 이룬 졸업생이 있어 화제를 모았다. 주인공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본교 행정학과와 사회복지학과에서 '공직특강', '행정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박경순(32) 겸임교수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등굑길에 트럭에 치여 두 다리를 잃고 1급 지체장애인이 되었다. 1994년 아홉 살의 어린 나이에 청천벽력 같은 사고였다. 하루아침에 휠체어와 의족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에 낙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와 가족은 좌절하지 않았다. 사고 이후에도, 장애인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초·중·고에 진학했다. 그리고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매진했다.

“친구들과 뛰어 다닐 순 없었지만, 중학교 시절 음악선생님의 배려로 합창단원으로 노래도 하고, 고교 시절에는 체육선생님의 배려로 친구들과 배드민턴도 쳤어요. 문학시간에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친구들과 앞에서 멋지게 노래 부르던 것도 기억에 남네요.”

2005년 본교 행정학과에 입학한 그는 전공과 교직수업을 들으며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쉼 없이 노력했다. 모교인 대전동신고에서 교생실습을 했고, 한국공공행정학회의 논문 대회에서 입선하는 등 대학 생활을 알차게 보냈다. 노력의 결실로, 대학졸업 때 그는 행정학사 학위증 이외에도 복수전공인 공통사회 학위증, 중등정교사 2급 일반사회/공통사회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교사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및 제도 부족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더 깊이 갖게 된 그는 교사의 꿈을 잠시 접고 좀 더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다. 2009년 3월 한남대 대학원에 입학해 장애인 고용 등을 연구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고, 한남대 공기업정책연구소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등 학업과 연구에 몰두했다.

“제가 사람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지도교수님을 비롯한 저의 은사님들, 지인들의 도움과 배려가 있었기에 이만큼 멀리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후배들과 제자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소중한 지인들과 나눈 메일, 손 편지, 메시지 등의 기록을 책으로 제본해 간직하고 있다. 힘들 때마다 그 책을 보며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꿈을 꾸다고 말한다.

“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 편안한 선배이자, 친근한 교수가 되고 싶어요. 행정·정책분야의 전문가로서 제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오늘 제가 걷는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박경순 겸임교수가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2. 박경순 겸임교수(오른쪽 두 번째)와 제자들이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로 승부하다!

한남대학교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충청 1등 사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발빠르게 적응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있다.



이덕훈 총장이(왼쪽 여섯 번째)이 '1차 미래기획단' 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젊은 직원들 해외선진대학에 벤치마킹 가다

한남대 젊은 직원들이 대학의 조직 및 업무 혁신을 위해 해외 선진대학으로 벤치마킹에 나섰다. 일반직원 7, 8, 9급과 계약직원, 총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1차 미래기획단'은 2~3명씩 팀을 꾸려 6월과 7월 중 해외자매대학 및 APCU 회원교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한다.

이들이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들으며 배워온 해외 선진대학들의 교육시스템과 성공 사례 등은 활동 보고서로 작성해 우리대학의 미래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덕훈 총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대학은 혁신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해외 선진대학 벤치마킹은 우리대학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투자가 될 것이다. 직원들이 직접 배워온 해외 선진교육 시스템을 잘 적용해 한남대의 가치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 벤치마킹에 참가한 박효균 직원(전략기획팀)은 "수고하는 많은 직원들을 대표해 미래기획단에 선발돼 책임감이 크다. 젊은 직원들이 주축인 만큼 새롭게 혁신적인 해외 선진 교육시스템을 배워와 학교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장로교대학연맹(APCU)과의 교류 활성화

미국 이외의 대학으로는 최초로 지난해 미국장로교대학연맹(APCU) 정회원으로 가입한 한남대가 APCU 회원대학들과의 교류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 이덕훈 총장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APCU 총장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66개 회원 대학들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대학의 미래 설계-대학 재정 운영 사례' 등 4가지 주제를 놓고 사례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2019년 APCU 총장회의를 한남대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다. 이밖에도 한남대와 다른 회원 대학간 교수 및 교환학생 교류를 확대하고, 하계 한국학문화연수프로그램(KSSP)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 확대를 위한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미국남장로교역사박물관(PHS)과 역사기록문 협약

한남대는 3월 미국 필라델피아의 장로교역사기록보관소(PHS,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에서 1956년 한남대(전 대전대학) 설립 초창기의 기록물들을 다수 발견하고 PHS와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자료 발굴 및 보존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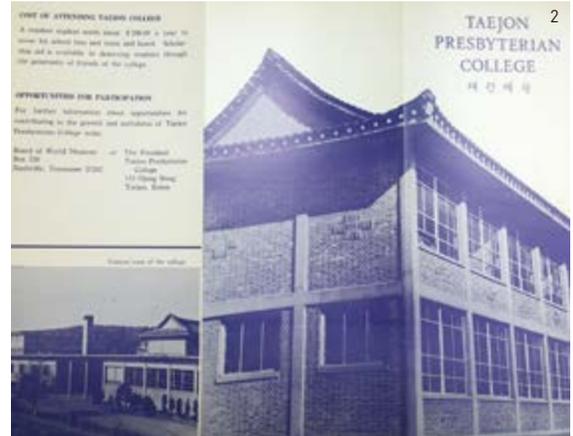
소장자료 중에는 한남대의 설립위원장이며 초대학장인 윌리엄 린튼(한국명 인돈) 선교사에 관한 기록, 대학설립 준비 회의록, 찰스 데이비스의 캠퍼스 설계 관련 자료, 대학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많은 선교사들의 기록 등이 있다. 또한 개교 초창기의 대학 홍보리플렛과 후원 모금 자료, 영문대학신문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에서 한남대가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인증대학’으로 지난 2월 최종 선정됐다. 본교는 지난 1주기 인증 획득에 이어, 2주기 인증까지 획득함으로써 글로벌 우수대학으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갔다.

인증대학 선정에 따라 본교는 11개 언어로 안내되는 교육부 공식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추천대학으로 공시된다.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 교육기관에도 공식 인증대학임이 통지된다.

또한, 각종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되며, 향후 국제화 관련 사업에서도 가점을 부여받는다.



1. PHS에 소장되어 있는 1968년도 대전대학(현 한남대) 영자신문
2. PHS에 소장되어 있는 대전대학(현 한남대) 소개 리플렛
3. 이덕훈 총장오른쪽 두 번째)과 한남대 방문단이 미국 윌슨칼리지 실험실을 둘러보고 있다.
4. 교육부지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린튼스쿨, 세계를 품다!

한남대학교의 국제학부인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LSGB)은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선도함과 동시에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최근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린튼스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전국고등학생 린튼 모의 UN-WFP총회’ 개최

세계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서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제1회 전국고등학생 린튼 모의 UN-WFP총회’가 6월 3일 개최되었다. 세계 기아 종식 즉, ‘제로헝거(Zero Hunger)’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국내 대학으로는 최초로 WFP(세계식량계획)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되었다.

지난해 12월 린튼스쿨 학생들이 WFP한국사무소를 방문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모의 UN개최를 제안하였으며, 학생 주도의 모의 UN행사에 대한 WFP의 관심과 협력을 이뤄내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린튼스쿨측은 “전국고교 모의 UN-WFP총회가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세계시민의식을 갖추고 국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56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전국고등학생 린튼 모의 UN-WFP총회에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린튼스쿨, ‘글로벌 인턴십’ 주목

견문을 넓히고 취업에도 성공하는 1석 2조 ‘글로벌 인턴십’이 주목받고 있다. 린튼스쿨은 올해 2월 1차로 학생 9명을, 2차로 약 20여명의 학생들을 해외 인턴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린튼스쿨은 2014년부터 중국,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의 해외기업에 꾸준히 인턴을 파견하였으며, 파견 학생은 인턴십 활동에 대해 최대 15학점을 인정받고 항공료 및 생활비 지원 등의 파격 혜택을 받는다.

인턴십을 거쳐 정식으로 취업한 성공사례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작년 6월 홍콩의 ‘The Ocean company’에 인턴으로 파견되었던 장은형 씨(4년)는 올해 1월 현지 인턴십을 마치고 해당 기업의 한국 지사인 ‘더 오션’에 채용이 확정되었다.

한 인턴십 기업 관계자는 “인턴십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고 현장 교육을 이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좋다. 앞으로도 인턴십 참가 학생들의 취업 연계를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계절학기 수강

매년 방학이면 린튼스쿨 학생들은 세계적 명문대학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다. 올해도 겨울방학에 일정 인원을 선발해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작년 겨울방학에는 19명의 학생들이 2주 동안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계절학기 과정으로 개설된 ‘국제 비즈니스 이슈들(Contemporary International Business Issues)’을 수강했다.

참가학생들에게는 항공료, 보험료 및 수업료 등의 약 70%인 1인당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며, 이는 한남대의 ‘글로벌비즈니스 창의인력양성사업단’이 2014년 교육부의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추진되었다.

린튼스쿨 김영서 학생(4년)은 “케임브리지에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영광이다. 체계적인 전공수업은 물론 다양한 사람 및 문화와 소통하면서 배우는 것이 정말 많다”고 말했다.

59대 총학생회 ‘울림’, 깊은 울림을 주다!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학우들을 대표하여 학교 발전에 힘쓰고 있는
한남대학교 제59대 총학생회 ‘울림’의 다양한 활동들을 들여다보자.



2017 청림축제에서 싸이가 공연을 하고 있다.

학생,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17 청림축제 <You Hu>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교내 일원에서 2017 청림축제 ‘YOU HU(당신과 함께 하는 한남대)’가 개최되었다. 축제 첫날인 30일 싸이(PSY)를 시작으로 31일 여자친구, 더 크로스 김경현, 6월 1일 창모, 크러쉬 등 최고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대운동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인기가수들의 공연만 있는 것이 아니다. 6월 1일 낮에는 총학생회 임원들이 학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을 초청해 ‘작은음악회’를 열고 직접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하며 평소 노고를 위로하는 훈훈한 시간도 있었다.

이와 함께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동아리발표제, 플리마켓, 한남가요제, 한남골든벨, e스포츠타치, 이벤트존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다.

시험기간 ‘아침나눔’ 행사

“아침 든든히 먹고, 중간고사 잘 보세요!”

한남대 총학생회는 매학기 시험기간마다 아침나눔 행사를 열고 있다. 공부하느라 힘든 학생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기간에도 어김없이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약 800개의 주먹밥과 생수를 준비했다. 이덕훈 총장과 박민규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 임원들은 오정동 캠퍼스와 대덕밸리캠퍼스에서 등교하는 학생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준비한 주먹밥과 생수를 전달하며 마음을 나누었다.

‘사랑의 헌혈’ 캠페인 가져

헌혈 캠페인으로 새 학기를 알리는 총학생회의 전통은 어느덧 10년 짝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개강일인 3월 2일 교내 상징탑을 비롯한 캠퍼스 곳곳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가졌다. 신입생과 재학생을 비롯해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하며 대학설립 정신인 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학교 소식

1

본교 '2017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선정

본교가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17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에 선정됐다.

본교는 향후 3년 동안 매년 최대 1억 8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지역 거점 센터로 대전 지역 스포츠산업의 시장 개발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 운영은 생활체육학과(사업책임자 한동유 교수)가 주축이 되어 유망한 창업 교육생 선발, 교육 프로그램(4개월), 우수 학생 선발, 지원,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성인화 산학협력단장은 "한남대는 창업에 특화된 최고의 창업 대학이 되기 위해 학교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를 현재 한남대가 수행중인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사업), 창업선도대학 사업, IPP일학습병행 사업 등과 연계해 성공적으로 육성해 지역 내 연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 평가에서 3년연속 A등급

중소기업청이 3월 전국 34개 창업선도대학을 대상으로 매출 및 고용, 창업교육, 교내 동아리 육성 등에 대해 실시한 2016년 종합평가에서 한남대 창업지원단이 A등급 평가를 받았다. 한남대 창업지원단은 대전·충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A등급 평가를 받으면서 창업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본교는 2012년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약 146억 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으며 총 142개 기업의 창업을 지원했고, 이들 창업기업의 누적 총 매출액 365억 원과 171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냈다. 또한 기업가정신의 저변 확대 및 창업교육, 창업장학금 지원, 일반인 창업강좌 교육 등 지역 내 창업인프라 확충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3

중부권 대학 최초(전국 3번째) 개인투자조합 설립

한남대 기술지주회사와 교직원들이 지역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엔젤투자자로 나섰다.

본교는 대학이 주도하는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월 9일 중소기업청 지정 '한남기술지주 투자조합 1호'를 결성했다. 이 투자조합은 중부권 대학으로서는 최초이며, 전국 대학 중에서 3번째로 결성돼 중기청에 등록을 마친 것이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일종의 사모펀드로서 개인 등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 펀드를 조성한 뒤 성장성이 높고 유망한 기술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 투자조합은 이덕훈 총장을 비롯해 한남대 교수와 직원들이 4천7백만원, 한남대기술지주회사가 5천6백만원을 조성하여 출자총액 1억3백만원으로 결성됐다. 투자조합이 결성되자마자 바이오업종 지역 유망벤처기업에 5천만원을 투자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④

한남대,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4월 '2017년도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 수행기관' 으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남대를 선정했다.

본교는 앞으로 중앙로지하상가(상인회장 정인수) 내 600여 개의 소점포를 대상으로 5개 학과(의류학과, 디자인학과, 컨벤션경영학과, 무역학과, 글로벌IT경영학과) 65명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입주상인들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학생들은 지하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스마트-가이드북 개발,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코디북 제작, SNS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⑤

건축공학전공 학생들이 경진대회 수상

4월 1일 열린 대전·세종·충남 건축학회 경진대회에서 한남대 건축공학전공 학생들이 대상과 금상 및 은상을 수상했다.

구조분야, 재료분야,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 시공 및 건설관리분야,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등 총 6개 부문에 총 22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경진대회에서 건축공학전공 3학년 이창섭, 4학년 류준열, 윤재호 팀이 구조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작년에 이어 구조부문 2연패를 달성했다.

또한 재료부문 경진대회에서 4학년 임문교, 최수환, 성예은, 류연상 팀이 금상을, 시공부문에서 3학년 윤승휘, 김다영, 신세아, 김예나 팀이 은상을 각각 수상했다.



⑥

장애체험 및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본교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일주일 앞둔 13일 오후 1시 30분 교내 린튼공원에서 이덕훈 총장과 교직원,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직접 참여하는 '장애체험 및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을 실시했다.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남인수)와 협력해서 진행된 캠페인에서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직접 휠체어를 타고 간이 턱과 경사로 등을 지나가보며 현실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체험했다. 또한 학생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수어(수화) 배우기, 저상버스 홍보 및 도입촉구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다.



7

손대락 교수, 한남대 첫 벤처분야 스타교수 선정

한남대의 첫 벤처분야 스타교수에 손대락 교수(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가 선정됐다. 2월 23일 56주년기념관 서의필홀에서 열린 2017학년도 1학기 개강교수회의에서 이덕훈 총장은 손대락 교수에게 스타교수 표창장과 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손 교수는 스타교수 전용 주차공간을 배정받으며, 수업 책임시수도 경감된다.

손 교수는 2006년 (주)센서피아를 창업해 인공위성, 국가방위, 계측분야 등 관련 산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2013년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에 실려 발사된 과학기술위성2호에 손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위성 자세제어용 핵심부품이 탑재된 바 있다.



8

중앙박물관,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박물관 연계 사업' 선정

한남대 중앙박물관(관장 이정신)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2017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도란도란, 나의 박물관 이야기"」 사업에 선정됐다.

중앙박물관은 이번 사업을 위해 "고고학 X파이널 -고고학, 그것이 알고싶다-" 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지난 4월 16일 세종도담초등학교 학생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박물관을 만든 사람들', '기와 꽃이 피었습니다', '유물발굴과 보고서 만들기', '계족산성과 숨은 유적 찾기' 등 4꼭지의 세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9

지역특성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GTEP)사업단, 장관상 등 대거 수상

한남대 지역특성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GTEP)사업단(단장 이재현 무역학과 교수)이 3월 31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열린 전국 GTEP 사업단 10기 수료식 및 11기 발대식에서 다양한 분야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우수 GTEP 활동으로 노종화(무역학과)씨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이승훈(무역학과)씨는 지역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남대 GTEP사업단은 무역 우수사례 발표 대학으로 선정돼 'One Step Beyond Alpha'라는 주제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성공사례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10

한국지엠(GM)과 지역 자동차 마케터 양성 프로그램 협약

본교는 3월 28일 한국지엠(주)과 '자동차 지역 마케터(Regional Marketer) 양성프로그램 협약' 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덕훈 총장을 비롯해 한국지엠 서부총괄본부장 황재섭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지엠(주) 서부총괄본부에서 지역특화전략의 일환으로 자동차 지역마케팅에 필요한 전문 수행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한남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인턴십을 통해 지역 자동차 마케터 전문가 육성과 인재 개발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향후 한남대 캠퍼스에 전기차 충전소와 그린자동차를 시범운영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린캠퍼스 운영에 기여하게 된다.



교수 동정



① — 김건하 교수, 학술상 및 국회부의장 표창 수상

김건하 교수(건설시스템공학과)가 2월 한국지하수도양환경학회로부터 학술 및 연구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여 물 분야의 학술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또한 환경부가 주최한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환경정책기여와 환경기술개발공적으로 국회부의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② — 김정신 교수, (사)한국패션문화협회 회장 선임

김정신 교수(의류학과)가 한국패션문화협회장으로 선임되어 2017년 1년 임기동안 파리 '2017 국제 패션아트 전시' 및 국제 학술세미나, 워크숍 등 협회의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패션문화협회는 1995년 창립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비영리 법인으로 대학교수, 패션아트 작가, 패션디자이너, 패션사업체 등 약 300여명의 회원들이 패션아트를 통한 패션문화 교류, 창출, 진흥과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③ — 윤승현 교수, 경주화백컨벤션센터(하이코) 2대 사장 취임

경주화백컨벤션센터(하이코) 2대 사장에 윤승현 교수(컨벤션호텔경영학과)가 지난 1월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윤 사장은 코엑스 상무를 거쳐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을 지냈다. 작년 3월에는 한국컨벤션학회 회장, 지난 8일에는 한국무역전시학회 회장에 취임하는 등 국내 MICE 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④ — 이광섭 교수, LG화학 고분자학술상 수상

이광섭 교수(화공신소재공학과)가 4월 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고분자학회 춘계총회에서 한국고분자학회 최고의 학회상중의 하나인 LG화학 고분자학술상을 수상했다.

LG화학 고분자학술상은 국내 고분자 산업을 선도하는 LG화학이 지난 2013년부터 국내 고분자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한국고분자학회 춘계총회에서 수여한다.



⑤ — 한상수 교수,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회장 선임

한상수 교수(영어영문학과)가 5월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6대 회장에 선임됐다. 이 학회는 1967년에 설립돼 영어학, 영문학 및 영어교육 관련 연구자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학문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고 있다.

한 교수는 현재 한남대 인문학술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부대학장, 학생복지처장 등을 역임했다.

기부, 그리고 사랑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깃든 귀한 발전기금은
한남대학교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① 남대문시장상인회, 현물 1억원 기탁

성하준 남대문시장 상인회장이 5월 22일 현물 1억원 상당의 대학발전기금을 기탁했다. 기탁 현물은 최근 남대문시장 삼호·우주상가 안에 문을 연 '한남 글로컬 창업&디자인센터' 및 학생 창업 점포 10개이다.



② 화공신소재공학과 교수들 장학기금 1056만원 기탁

한남대 화공신소재공학과 교수 13명이 5월 16일 1056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정성일 학과장은 "교수들이 매월 일정액씩 정성을 모았다"며 "학생과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③ 영어영문학전공 교수들 장학기금 총 3000만원 기탁

한남대 영어영문학전공 교수 6명이 4월 19일 교내 정성균선교관에서 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이덕훈 총장에게 전달했다.



④ 교육대학원 김남기 차장, 대학발전기금 500만원 기탁

본교 교육대학원 김남기 차장이 4월 4일 오후 대학발전기금 500만원을 이덕훈 총장에게 기탁했다. 김남기 차장은 "요즘 대학의 현실이 녹록치 않은데 작은 정성이지만 학교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전기금을 냈다"고 말했다.



⑤ 눈빛안과 협약 체결 및 발전기금 기탁

2월 15일 눈빛안과 이효 원장은 향후 3년간 총 2천만원의 발전기금을 본교에 기탁하는 약정서를 전달하고 한남대와 협력병원협약을 체결했다. 추후 양 기관은 교직원과 학생 건강특강 및 진료비 우대,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참여, 우수학생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 인력교류와 정보교류, 연구개발에 협력하게 된다.

나눔의 실천, 여러분의 기부에 감사합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기부로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대학발전기금은 큰 액수의 돈을 기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한남대학교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기부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과 권리

본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 및 학교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합니다.

- 기금의 기여정도와 기부하신 분의 의사에 따라 건물 또는 건물 내 특정 공간의 명칭을 명명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자 명단은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에 공지합니다.
- 출연하신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 및 법인 세제혜택을 위하여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발전기금 참여방법

- 방문납부
학교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전기금을 기탁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본관 1층에 위치한 대외협력팀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 급여공제
본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기부 하실 수 있습니다.
대외협력팀(Tel. 042-629-7502~3, 8099)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 무통장입금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개설한 한남대학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사람'란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 주시고 전화로 입금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710401-00-002814 / 예금주 한남대학교]

대학과 지역사회가 서로 상생하는 “한남사랑 후원의 집”

어려운 경제 환경의 여건 속에서 한남 가족기업 및 지역의 상가들과 연계하여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환경에서 대학발전기금 모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남사랑 후원의 집’은 약 500여 개에 이르는 한남 가족기업의 네트워크와 학교 주변의 상가 그리고 본교 교직원 및 특수대학원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상생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대학환경개선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후원의 집’의 특별한 혜택

- 제휴업체에게는 “한남사랑 후원의 집” 액자를 제작하여 드립니다.
- 5천만원 이상의 대학발전기금을 약정 또는 기부하는 제휴업체의 직계 가족이 본교 또는 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및 학비감면의 혜택을 드립니다.
- “한남사랑 후원의 집” 제휴업체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5백만원 이상의 발전기금 유치 시, 「대학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발전기금 유치액의 5%를 성과급으로 지급 (1건당 최고한도액은 5백만원이며 성과급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



영화 속의 한남

한남대학교에서 촬영한 영화들



① 살인자의 기억법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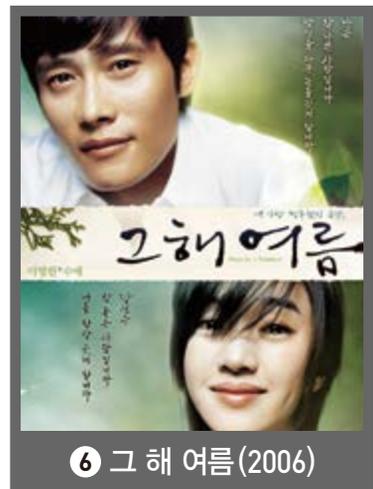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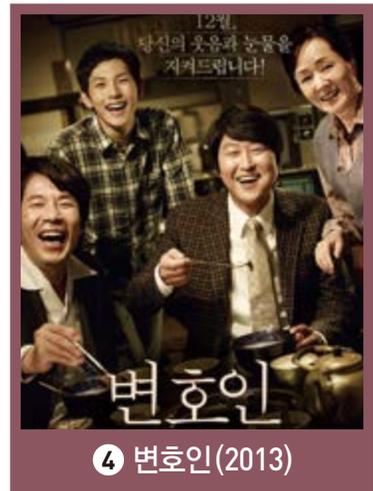


② 덕혜옹주 (2016)



③ 세시봉 (2015)







알카미

Vol. 23

2017 Summer

